

비극적 사건 때 나오는 음모론은 불가피한 것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캐스 셉스타인 지음

천안함과 세월호는 잠수함 때문에 침몰하거나 구조가 늦어졌다. 세월호 안에 핵 폐기물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구조작업을 하지 않았다. 구원파 유병언은 아직 살아 있고, 발견된 시체는 다른 사람의 것이다. 미국 정부는 2001년 9월 11일 전에 이미 테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또 미 연방 공무원이 세계무역센터 공격에 가담했거나 공격을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은 CIA에서 주도했고, 에이즈 바이러스는 의사들이 고의적으로 퍼뜨렸다. 기후변화 이론은 사기극이며,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조작이다.



정부가 바로잡으려 노력하면 역효과

진행 상황 관망하는 전략이 현명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우리는 이처럼 대형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그럴싸한 뒷이야기를 듣거나 말한다.

시카고대와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규제정보국 국장으로도 활동한 캐스 셉스타인의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는 음모론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음모론을 설명하기 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언제라도 완전한 영터리로 판명될 수 있다'고 못 박는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소문과 음모론

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철석같이 믿었던 말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음모론을 제대로 알려면 왜 음모론이 생기는지 살펴야 한다. 지난 2004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49%는 9·11 테러 이전에 미국 정부가 이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 대처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저자는 이를 '폭포 효과'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음모론을 믿는 척하거나 적어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도 있다. 예를 들어 FBI가 마틴 루터 킹을 암살했다

는 설을 믿는 사람은 기후변화가 거짓이라는 설도 믿을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다. 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호 모순적인 음모론을 계속 믿는 경우도 많다. 가령,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살아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녀가 의도적으로 살해됐다는 음모론도 믿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이나 위기가 발생할 때 낭설과 추측이 떠도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규정한다.

또 미국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답게 저자는 음모론에 대처하는 정부의 입장도 정리했다. 정부가 음모론을 바로잡으려는 노력 자체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

저자는 "이성적인 관료라면 진행 상황을 관망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21세기북스·2만1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형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그럴싸한 음모론이 돈다. 사진은 아직도 술한 음모론을 낳고 있는 9·11 테러 당시의 모습.

철학·과학·예술·종교·신비... 심오한 대화 놀이 세계로 초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채사장 지음

채사장은 인기 팟캐스트 '지대넓얕' 진행자다. 누적 다운로드 150만 회, 철학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대넓얕'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의 약자다.

그가 첫번째 펴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첫번째 권은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저자는 자신의 저작을 '심오한 대화 놀이의 세계로 초대하는 티켓'이라고 소개하며 지적대화를 위한 첫걸음은 나와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말한다.

신작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두번째 권은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분야를 다루고 있다. 전편에서는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에 대한 지식을 풀어냈다.

첫째권이 현실 세계를 다뤘다면 두번째권은 현실 너머의 세계, 인간 정신과 관련된 부분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설명한다.

저자는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를 기반으로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분야를 이야기한다.

철학 파트에서는 절대주의의 흐름으로서 플라톤, 고부철학, 합리론

을 살펴보고 이어 상대주의의 흐름인 아리스토텔레스, 스킨라철학, 경험론을 이야기한다. 또 회의주의적 견해로 소피스트, 니체, 실존주의 철학을 논한다.

예술 분야에서는 절대주의의 예술인 고대 그리스 미술 양식부터 르네상스, 신고전주의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어 상대주의의 예술양식인 바로크, 낭만을 지나 회의주의적 관점이 등장하는 현대 미술을 설명한다.

저자는 "하나의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 개념을 선별해서 단순화하고 간명하게 연결된 인문학의 골격을 제시하기 위해 쓴 책"이라고 말한다.

〈한빛비즈·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

새로 나온 책

▲**징비록** = '징비록'은 임진왜란 당시 국방·군사·정치·외교·민사적 등 모든 분야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 대신 유성룡이 쓴 임진왜란 기록이다. 시인 김기택이 원작자의 마음을 오롯이 되살리되 누구나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편찬한 문제로 다들었다. 해설은 전쟁의 중요한 일지와 연대기 그리고 조선, 일본, 명나라의 전략과 무장의 실체를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통해 풀어냈다. 〈알마·1만3800원〉

▲**치유 심리학** = 중국을 대표하는 심리학 작가 우즈훙이 전하는 몸을 통해 마음 들여다보기. 저자는 몸이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픈 결과이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진실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고 다친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강을 단순히 생리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를 존중



할 때 비로소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스카이·1만2900원〉

▲**숨어 있는 한국 현대사** = 격동의 대한민국사 100년에서 건져 올린 드라마틱한 사람과 사건을 통해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보는 '숨어 있는' 한국 현대사 두번째 이야기. 저자는 1권과 마찬가지로 시종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세대 이전의 시간과 공간을 밟아갔던 사람들의 궤적을 생생하게 짚어간다.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 주석 뒤의 '멋진 어머니' 광낙원 여사의 가슴 뭉클한 에피소드 등 우리가 몰랐던 지난 세기의 29가지 역사 이야기가 다시 펼쳐진다. 〈인문서원·1만6000원〉

▲**인도, 100년을 돌아 보다** = '인도연구원총서' 시리즈의 첫 책. 인도 유수의 석학들이 20세기 인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깊이 회고하며 정리한 기록을 모은 결과물이다. 책에 참여한 저명한 인물들은 인도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를 살았던 이들이다. 따라서 이 책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해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시대로부터 해안을 얻고 그들의 삶을 회고하여 그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문집·2만원〉

▲**생각의 문법** = 사람들마다 생각의 내용은 물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은 각자 다른 '생각의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생각의 문법' 연구를 통해 '확신'은 소통의 적(敵)일 수 있다는 점에 눈을 돌려 보자고 제안한다. 그가 제안하는 것은 '확신'과 '확신' 사이에 소통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공통의 문법'이다. 그 '공통의 문법'을 찾기 위해 이 책에서는 주로 '최대공약수'에 해당하는 '생각의 문법'을 다뤘다.

〈인물과 사상사·1만5000원〉
▲**검은 수련** = 미셀 뷔시의 다섯 번째 장편소설. 출간 후 귀스타브 플로베르 대상을 비롯한 7개 문학상을 받으며 뛰어난 문학적 성과 함께 추리소설로서의 확실한 재미까지 인정받았다. 노르망디 출신의 루앙 대학교 지리학자 교수인 작가를 프랑스 최고의 추리작가라고 만든 소설 '그림자 소녀' 이후, 전작이었던 '검은 수련'은 그 진가를 드러냈다.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한 이 작품은 결국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면서 평단과 독자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달콤한 책·1만3800원〉

어린이 책

▲**따라 그리며 배우는 세계사** = 세계 문화의 모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고 따라 그리면서 세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운다. 손으로 그리고, 이야기를 읽고, 눈으로 감상하면 더 즐거운 역사 배우기가 된다. 몰입식 체험 교육을 응용해 세계 대표 문화재를 따라 그리게 구성하고 역사 퀴즈까지 곁들여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책숲·1만2000원〉



▲**팡킨 랄랄라** = 뽀뽀뽀뽀뽀 뽀뽀 뽀뽀,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얼음 구멍에 빠져 버린다. 이제 팡킨 네 마리뿐. 바다사자가 팡킨을 밀어올려 준다. 다시 팡킨 다섯 마리가 영글영글 기어간다. 이번에는

물범이 자다가 반쯤 눈을 떴다. 그런데 팡킨이 한 마리밖에 안 보인다. 어떻게 된 일일까? 〈반달·1만3000원〉

▲**마왕의 수수께끼를 풀 돼지** = 과학 시리즈로 사랑받았던 돼지학교가 수학 시리즈로 돌아왔다. 초등 수학의 다섯 가지 영역인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 분야를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주

제별로 담았다. 돼지 삼총사의 다양한 모험을 통해 초등 수학 지식뿐만 아니라, 자발적 수학 탐구력을 길러 준다.

〈내인생의책·1만2000원〉
▲**와! 고인돌이다** = 한반도 4만여 기의 고인돌 가운데 2000여 기가 밀집돼 있는 화순 고인돌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동북아지식교류연구소가 3권을 동시에 출간했다. 독자 눈높이에 맞춰 유아용 '와! 고인돌이다', 초등용 '하순 고인돌의 나라로', 청소년·일반용 '고인돌, 세상과 소통하다'로 나눠져 있다. 〈지성사·6000원〉

오직 양심과 정성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백합촌**

오늘의 물 좋은 요리

생우럭지리 (국내산)	소 25,000원 중 35,000원 대 45,000원
병 어	45,000원
생선구이 (2인기준)	25,000원 1인추가시 5,000원 추가
백합세트 (탕+무침+구이)	50,000원
백합탕	중 30,000원 대 40,000원
조기매운탕	중 25,000원 대 40,000원

목포시 상동 1159-3번지 (평화광장 상그리아비치호텔 옆 담양골 건너편)
T (061) 281-9907

법무사 배태경 사무소

봉사의 자세로 열정과 성의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 친절 무료상담
부동산 등기·법인등기
민사·형사·가사
호적·개명

경매 입찰 대행
가압류·가처분 등

T (061) 283-2322
F (061) 283-2302
목포시 옥암동 목포 경찰청 정문앞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로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위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가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